

## P-Space(Procurement-Space) 구축

업종 플랜트 설계 및 건설, 인프라, 에너지 등

임직원 수 약 7,405명

매출액 14조 7,604억 원(2024년 기준)

📅 2020.05 ~ 2021.02

### Customer Comments

엠로 시스템 도입으로 구매 담당자의 워라밸 확보는 물론,  
업무 리드타임이 30% 단축되었습니다.

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구매1팀 이호열 책임매니저

### Project Overview

#### Challenges

기존 시스템의 기능 제한, 데이터 파편화 등으로 구매 과정에서의 다양한 변수 대응 한계

정보 변경, 권한 설정 제한 등  
다양한 변수 대응 어려움

구매 요청-계약 1:1 매핑 등  
업무 유연성 부족

협력사 정보, 단가 정보 등  
구매 데이터 파편화

#### Solutions

EPC 산업 특성 반영, 업무 유연성과 사용자 편의성 고려한 맞춤형 구매 시스템 구현

단일 시스템 기반  
구매 프로세스 일원화

EPC 산업 특화 기능,  
사용자 편의 기능 등 개발

단가 DB, 협력사 정보 등  
구매 데이터 통합 관리

#### Results

입찰 및 보고 업무 효율성 개선으로 구매 리드타임 30% 단축, 단가 DB 기반 구매 협상력 강화

MR접수-E&I-입고/정산  
전체 리드타임 30% 단축

신규 업체 등록/평가/관리  
디지털화로 전사 업체 활용률 제고

협력사와의 변경 계약 시  
단가 DB 기반으로 구매 협상력 강화

## 도입 소프트웨어 Coverage

플랜트 외주/구매관리

Engineering

MSR

물류관리

Procurement

ESR

협력사 관리

E&I

ISR

전자입찰

Logistics

SSR

전자기성/세금계산서

PSR

Overall Status

모바일

단가 DB

## Challenges

### 기존 시스템의 기능 제한, 데이터 파편화 등으로 구매 과정에서의 다양한 변수 대응 한계

현대엔지니어링은 기존에 SAP를 기반으로 구매 업무를 진행해오고 있었으나 잦은 에러 발생은 물론 시스템 내 정보 변경, 권한 설정 등이 어려워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. 또한, 구매 요청과 계약이 1:1로만 매핑되는 등의 제약사항이 존재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신규 기능 개발 역시 쉽지 않아 사용자들의 불편사항이 많았다.

더욱이 SAP 시스템 상에서 모든 구매 프로세스를 커버할 수 없다 보니 협력사 등 외부 인력들이 접근 가능한 별도 포털을 함께 사용해야 했는데, 협력사 정보, 단가 정보 등 중요 데이터가 여러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통합 관리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존재했다.

## Our Solution

### EPC 산업 특성 반영, 업무 유연성과 사용자 편의성 고려한 맞춤형 구매 시스템 구현

현대엔지니어링은 2020년 전사적인 'Business Innovation' 프로젝트를 통해 구매를 비롯한 문서 관리, 설계, 시공 등 6개 주요 핵심 업무 시스템 (6-Space)을 새롭게 구축하는 과제를 진행했으며, 이 중 새로운 구매 시스템인 P-Space(Procurement-Space) 구축 과제 수행사로 엠로가 선정됐다.

P-Space의 설계 및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는 바로 '유연성'이다. 구매 업무를 진행하면서 발생 가능한 변경 및 이슈 사항에 대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계 과정부터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기능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. 가장 중요한 입찰 기능 외에도 프로젝트 벤더(Project Vendor) 리스트 관리, 단가 DB 구축, 리포트 작성 등 각종 부가기능도 개발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. 특히, 이 과정에서 해외 솔루션과 차별화된 엠로의 커스터마이징 역량이 빛을 발했다. EPC 산업에서 축적한 Best Practice 노하우와 구매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기능을 개발하고, 이를 시스템 상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.

## Results

### 입찰 및 보고 업무 효율성 개선으로 구매 리드타임 30% 단축, 단가 DB 기반 구매 협상력 강화

엠로와 함께 새롭게 구축한 P-Space를 통해 현대엔지니어링은 MR(Material Request, 자재요청서) 접수부터 E&I(Expediting & Inspection), 입고/정산까지 구매 프로세스 전반을 단일 시스템 상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. 특히,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는 입찰 및 보고 관련 업무 시간 단축이다. EPC 산업의 특성상 입찰 과정에서부터 변동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각 구매 단계마다 보고를 통한 실시간 의사결정이 필수인데, 기존에 일일이 서면 보고를 진행해야 했던 것을 구매 시스템과 내부 전자결재 시스템을 연동해 전자 보고로 대체함으로써 업무 리드타임이 30%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얻었다.

뿐만 아니라 파편화되었던 구매 관련 데이터를 P-Space에서 통합 관리 가능해짐으로써 데이터 활용 역량도 강화됐다.

구매 담당자가 개별로 관리하던 신규 업체 풀을 시스템 상에 일괄 등록-관리-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전사적으로 신규 업체 활용률이 높아지고, 각 부서에서 파악한 수행문제 이력 등 협력사와 관련된 이슈도 빠르게 공유해 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향상됐다. 또한, 통합 단가 DB도 구축해 협력사와 변경 계약 진행 시 과거 단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.

현재 6-Space 가운데 P-Space는 현대엔지니어링 내부에서도 가장 높은 활용률을 자랑하며, 구매 뿐 아니라 설계, 견적 담당자들도 업무에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. 현대엔지니어링은 현지 거점 구매 전산화 등 P-Space의 지속적인 기능 고도화를 통해 구매 혁신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.